

WEBVTT

00:00:31.009 --> 00:00:31.895

안녕하십니까?

00:00:31.995 --> 00:00:34.565

인문학 살롱의 유혜선입니다.

00:00:34.665 --> 00:00:40.551

이번 시간의 주제는 삶은 수직이고
죽음은 수평이다라는 주제인데요.

00:00:41.262 --> 00:00:45.260

이 주제는 우리 삶의 본질이
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

00:00:45.360 --> 00:00:48.103

규명을 해 보자는
그런 이야기입니다.

00:00:48.203 --> 00:00:52.066

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뭔가
화려한 미사여구라든지

00:00:52.184 --> 00:00:53.857

수식어가 참 많잖아요.

00:00:55.329 --> 00:00:58.314

외부적으로 볼 때는 산업도
굉장히 발달한 것 같고

00:00:58.414 --> 00:01:01.430

경제적으로도 굉장히
풍요로운 것 같아요.

00:01:01.530 --> 00:01:05.106

그런데 왜 이렇게
개인의 삶은 궁핍하고

00:01:05.286 --> 00:01:10.085

외롭고 소외되고 고독한 그래서
범죄도 많고 이런 건데요.

00:01:10.185 --> 00:01:14.947

한때 우리나라를 정말 경제
성장의 기적을 이룬 나라

00:01:15.047 --> 00:01:16.867

그렇지만 기쁨을 잃은 나라다.

00:01:16.967 --> 00:01:21.233

또는 영혼이 없는 국민이라는
평을 듣기도 합니다.

00:01:21.333 --> 00:01:23.826

이렇게 잘살고 모든 것을
다 가진 것 같은데

00:01:23.926 --> 00:01:26.366

왜 영혼이 없다고 이야기할까?

00:01:26.466 --> 00:01:31.819
그러면 삶이라는 건 뭔가에 대한
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.

00:01:31.919 --> 00:01:37.103
저는 삶에 대해서 질문을
던질 때는 피트 몬드리안의

00:01:37.203 --> 00:01:42.691
빨강, 파랑, 노랑의 구성 이 그림을
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.

00:01:43.177 --> 00:01:47.490
우리 삶이라는 것은 결국 많은
미사여구라든지 군더더기가 있지만

00:01:47.590 --> 00:01:53.097
결국은 이런 굵직한 검은 손의 수직,
수평 이 선밖에 없지 않은가?

00:01:53.197 --> 00:01:55.883
그다음에 색은 가장
기본 삼원색이죠.

00:01:55.983 --> 00:01:59.451
빨강, 파랑, 노랑
그다음에 흰색, 검은색.

00:01:59.551 --> 00:02:03.251
이게 우리 삶의 본질이
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.

00:02:03.393 --> 00:02:07.050
그래서 피트 몬드리안 같은
경우를 우리가 추상화가다,

00:02:07.150 --> 00:02:08.272
이렇게 이야기하죠.

00:02:08.372 --> 00:02:11.101
피트 몬드리안은 네덜란드 출신의

00:02:11.201 --> 00:02:14.191
네덜란드에서 아주 엄격한
켈빈파라고 그러죠.

00:02:14.291 --> 00:02:19.717
엄격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
정말 아주 점잖은 화가예요.

00:02:19.861 --> 00:02:23.679
그렇지만 유럽이 굉장히
격변하는 시대에 살았어요.

00:02:23.853 --> 00:02:28.039
그래서 1차 대전에 참가하고
그 외에 여러 가지

00:02:28.139 --> 00:02:33.768
몇 번의 전쟁을

치르면서 어떻게 사람이

00:02:33.868 --> 00:02:36.631

저렇게 사람을 무자비하게
죽일 수 있느냐,

00:02:36.731 --> 00:02:40.710

도대체 인간이라는 게 뭐냐,
인간의 삶이 옳고 그르고를

00:02:40.828 --> 00:02:45.858

누가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
근본적으로 회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.

00:02:45.958 --> 00:02:52.387

그래서 우리 안정을 찾고
이성을 찾고 평온을 찾아서

00:02:52.487 --> 00:02:57.026

다시 한번 되돌아보자, 평정하게
이성을 한번 되돌아보자는

00:02:57.175 --> 00:03:01.669

의미에서 그림을 사실적으로
그린다고 보다는

00:03:01.769 --> 00:03:05.165

본질을 찾아가는 그래서 추상이
본질을 꿰뚫는 거잖아요.

00:03:05.265 --> 00:03:07.798

그래서 사물의 정수를
한번 뽑아내 보자.

00:03:07.898 --> 00:03:11.634

우리 삶이 과연 뭔가라는
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.

00:03:11.734 --> 00:03:17.432

그리고 화가로서 몬드리안은
그 당시에 사진기라는 게

00:03:17.532 --> 00:03:18.912

나오기 시작했어요, 사회에.

00:03:19.075 --> 00:03:24.154

그래서 인상파도 등장하기 시작했지만
이 사진기가 나오으로써

00:03:24.254 --> 00:03:29.912

사물을 나무나 그림이나
사람이나 이런 대상을

00:03:30.012 --> 00:03:32.506

그대로 그린다는 것은 아무런
의미가 없는 거죠.

00:03:32.655 --> 00:03:34.847

사진기가 그걸 너무나
정확하게 다 해 버리는데

00:03:34.997 --> 00:03:39.220
그걸 화가가 그대로 그린다는 것은
별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

00:03:39.320 --> 00:03:42.662
이런 본질에 대한 고민,
본질에 대한 상상,

00:03:42.762 --> 00:03:46.387
사물의 정수를 뽑아내는
추상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

00:03:46.487 --> 00:03:51.562
기하학적인 단순함, 비례와
균등과 평정에 대한

00:03:51.703 --> 00:03:56.633
이런 공간 분할 이런 거에
대해서 고민을 하면서

00:03:56.733 --> 00:04:00.393
이런 그림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죠.

00:04:00.493 --> 00:04:00.717
어때요?

00:04:00.831 --> 00:04:03.780
여러분, 이 그림을
보면 굉장히 평온하고

00:04:03.880 --> 00:04:06.584
안정된 그림이라고 생각되고요.

00:04:06.684 --> 00:04:12.711
지금 20세기를 지난
21세기에도 가장 안정되고

00:04:12.811 --> 00:04:16.734
아주 피곤한 현대인들이
가장 힐링이 되는

00:04:16.898 --> 00:04:18.662
이런 세련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.

00:04:18.762 --> 00:04:21.945
그래서 여러분,
입생로랑이라고 하시죠?

00:04:22.864 --> 00:04:27.589
디자이너의 옷에 피트 몬드리안의
디자인이 들어가고요.

00:04:27.689 --> 00:04:32.795
그다음에 몬드리안룩이라고 그래서
여성들의 스포츠웨어라든지

00:04:32.895 --> 00:04:38.578
이브닝드레스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
세련된 실내장식 디자인으로서

00:04:38.678 --> 00:04:43.801

몬드리안의 디자인이 많은
광고라든지 이런 데 격찬을 받고

00:04:43.944 --> 00:04:47.291
지금도 높은 부가가치를 올리면서

00:04:47.391 --> 00:04:50.231
피트 몬드리안 디자인을
사용하고 있습니다.

00:04:50.344 --> 00:04:54.848
정말 세월이 지나도 흔들리지
않고 변함없는 안정감,

00:04:54.948 --> 00:04:57.079
특히 현대인들에게 힐링의 감을 주는

00:04:57.249 --> 00:04:59.671
세련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.

00:04:59.771 --> 00:05:05.193
그래서 피트 몬드리안의
빨강, 파랑, 노랑의

00:05:05.389 --> 00:05:11.105
이 그림은 나무를 보고 그림의
아이디어를 포착했다고 합니다.

00:05:11.205 --> 00:05:15.602
처음에는 빨간 나무를 보고
색깔을 없애기 시작하고요.

00:05:15.702 --> 00:05:18.357
군더더기의 나뭇가지를
없애기 시작하고

00:05:18.457 --> 00:05:24.133
없애고 정리하고 단정히 하고
이렇게 해서 본질을 꿰뚫어가면서

00:05:24.233 --> 00:05:29.040
사물의 정수를 추출해가니까
결국은 이런 수직과 수평의

00:05:29.140 --> 00:05:32.400
사각 모양만 남더라는
그런 이야기죠.

00:05:32.500 --> 00:05:36.304
그래서 여기에 가장 우리
인간의 기본적인 삶,

00:05:36.477 --> 00:05:40.872
기본적인 색을 삼원색으로 이렇게
빨강, 파랑, 노랑으로 정리해서

00:05:40.972 --> 00:05:44.251
안정된 오늘날 현대인들이 좋아하는

00:05:44.351 --> 00:05:47.714
이런 그림을 디자인했다고

이렇게 이야기합니다.

00:05:47.814 --> 00:05:52.941

그러면서 우리가 그리려는 삶은
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인가?

00:05:53.041 --> 00:05:57.091

아까 우리 몬드리안의 작품에서
수직과 수평을 이야기했듯이

00:05:57.191 --> 00:06:02.540

한스 홀바인의 죽은 그리스도의
그림을 보면 어때요?

00:06:02.640 --> 00:06:04.405

죽음은 그냥 수평이에요.

00:06:04.989 --> 00:06:07.780

죽는다는 것은 바로
수평을 의미하는 것이고

00:06:07.880 --> 00:06:10.265

또 그러면 살아 있다는 거는
뭐예요?

00:06:10.313 --> 00:06:11.123

이건 수직이죠.

00:06:11.242 --> 00:06:13.278

살아서 수직으로 활동한다는 것이죠.

00:06:13.378 --> 00:06:19.508

그래서 피트 몬드리안의 사각형
수직과 수평의 모형처럼

00:06:19.608 --> 00:06:23.389

우리 인간의 삶은 수직이고
죽음은 수평이다.

00:06:23.489 --> 00:06:27.279

그래서 간단하게 두 가지의
기하학적 형태로

00:06:27.446 --> 00:06:30.832

이렇게 본질을 추스려
볼 수 있다는 거죠.

00:06:30.932 --> 00:06:33.678

그래서 우리 삶을 이렇게
간단하게 두 가지로

00:06:33.836 --> 00:06:39.564

본질에 충실해서 보면 우리 인생을
굉장히 겸손하고 겸허하게

00:06:39.664 --> 00:06:41.369

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.

00:06:41.469 --> 00:06:43.180

그래서 군더더기가 없잖아요.

00:06:43.280 --> 00:06:48.264

어떤 결정이 힘들 때 방황하고
고뇌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

00:06:48.437 --> 00:06:52.318

모를 때 원칙으로 한번
돌아가 보면 원칙이 뭐예요?

00:06:52.485 --> 00:06:54.796

그 현상에 대한 본질이잖아요.

00:06:54.896 --> 00:06:59.114

그래서 우리 삶의 본질은
결국 내가 죽지 않는다면

00:06:59.170 --> 00:07:02.288

살아 있다는 것은 수직의 힘이라고

00:07:02.388 --> 00:07:05.165

이렇게 이야기를
드려볼 수 있겠습니까.

00:07:05.265 --> 00:07:10.837

그리고 수평과 수직의 개념에서
조금 더 자연 환경적으로

00:07:10.975 --> 00:07:16.651

나아간다면 훈데르트바서라는
건축가이면서

00:07:16.821 --> 00:07:18.859

예술가고 환경운동가입니다.

00:07:18.989 --> 00:07:23.552

지금 우리나라에 전시하고
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.

00:07:23.652 --> 00:07:27.519

우리는 자연에 초대된 손님이다.

00:07:27.619 --> 00:07:34.943

그러면서 성명을 발표하는데
나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나와서

00:07:35.043 --> 00:07:37.740

주목을 받게 하는
것도 목적이 있지만

00:07:37.840 --> 00:07:43.315

이 훈데르트바서는 피부를 5가지
단계로 표현한다고 합니다.

00:07:43.415 --> 00:07:48.919

첫 번째 피부가 우리 인간의
피부, 표피, 살갗이죠.

00:07:49.019 --> 00:07:55.081

이게 제1의 피부라면 제2의 피부는
우리가 입는 옷이라는 거죠.

00:07:55.270 --> 00:07:58.955

이 옷도 어떨 때는
굉장히 거추장스럽고

00:07:59.055 --> 00:08:02.100
장식은 너무나 불성실한 것이다.

00:08:02.270 --> 00:08:03.377
그래서 다 없애라.

00:08:03.545 --> 00:08:06.244
다 없애고 그래서 아주
극명하게 나신으로

00:08:06.417 --> 00:08:09.653
건축의 합리주의에
반대하는 곰팡이 선언

00:08:09.815 --> 00:08:15.284
이래서 이렇게 나신으로
해서 세인의 주목을 받아서

00:08:15.423 --> 00:08:18.944
성공적인 선언으로
퍼포먼스를 했는데요.

00:08:19.044 --> 00:08:22.625
우리 제3의 피부라는 것은 우리가
살고 있는 집이라는 것이죠.

00:08:22.815 --> 00:08:27.909
집, 건축 이런 것을 훈데르트바서는
제3의 피부라고 이야기하는데

00:08:27.957 --> 00:08:30.730
우리가 합리주의,
기능주의를 빙자해서

00:08:30.830 --> 00:08:35.532
막 뜯고 고치고 부수고 바꾸는
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.

00:08:35.632 --> 00:08:37.946
그게 오히려 사람들을 더욱더

00:08:38.033 --> 00:08:41.710
제1 피부, 제2 피부를
병들게 한다.

00:08:41.711 --> 00:08:47.502
그래서 제3 피부가 집이라면
제4 피부는 사회적인 환경

00:08:47.602 --> 00:08:52.731
그다음에 제5 피부는
더 나아가서 지구의 생태계.

00:08:52.831 --> 00:08:56.562
그래서 이 5가지 피부를
우리는 건전하게 해야 한다.

00:08:56.662 --> 00:08:58.387

이거를 망가뜨리면 안 된다.

00:08:58.487 --> 00:09:03.481
우리가 세련되게 하고 디자인을
넣고 이렇게 장식을 주고

00:09:03.638 --> 00:09:08.144
꾸미고 하는 것은 자연에 대한
모독이고 범죄 행위다.

00:09:08.244 --> 00:09:14.983
우리는 자연을 훼손할 권리가
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

00:09:15.083 --> 00:09:20.147
소유하려 하지 말고 부수려
하지 말고 자연 그대로 뒀라.

00:09:20.301 --> 00:09:24.182
그래서 훈데르트바서의 자연주의.

00:09:24.282 --> 00:09:29.025
그래서 자연적인 조화와 평화,
아름다움과 즐거움에 대한

00:09:29.125 --> 00:09:35.260
그의 철학은 예술과 사회, 건축과
생태적 우주를 모두 아우르게 하는

00:09:37.687 --> 00:09:40.864
주장이라고 이렇게
말씀드리고 싶습니다.

00:09:40.984 --> 00:09:44.839
그래서 훈드르트바서의
이런 생태주의적 관점은

00:09:44.939 --> 00:09:49.444
마치 곡선으로 우리가
나뭇가지를 걷어내듯이

00:09:49.544 --> 00:09:54.071
그대로 두면서 곡선적인
삶, 자연적인 삶으로서

00:09:54.220 --> 00:09:57.924
우리는 완벽하게
군더더기를 다 없애자.

00:09:58.024 --> 00:10:01.614
그래서 삶은 수직이고
죽음은 수평인데

00:10:01.778 --> 00:10:07.322
거기에서 완벽한 나신의 삶
이것이 정말 본질적인 삶의

00:10:07.422 --> 00:10:11.141
군더더기를 뺀 그런 주장이
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

00:10:19.427 --> 00:10:22.708
삶은 수직이고 죽음은 수평이다.

00:10:23.560 --> 00:10:26.209
이 주제에 대한 내용을
다음과 같이 4가지로

00:10:26.377 --> 00:10:30.822
제가 결론을 한번 맺어보면
결국 우리 삶의 본질이 뭐냐?

00:10:30.922 --> 00:10:34.222
우리가 본질을 이해하면
굉장히 겸손해지고 겸허하고

00:10:34.322 --> 00:10:37.383
진솔하게 살아갈 수 있다,
복잡하지 않다는 것을

00:10:37.547 --> 00:10:40.765
우리가 이 주제를 통해서
배울 수 있는데요.

00:10:40.865 --> 00:10:43.214
첫 번째는 단순함입니다.

00:10:43.314 --> 00:10:44.599
간단하게 생각하라.

00:10:44.760 --> 00:10:46.032
수직이고 수평이다.

00:10:46.166 --> 00:10:49.011
이 두 가지 관점에서 결정을 내리면

00:10:49.111 --> 00:10:51.294
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
있다는 거죠.

00:10:51.394 --> 00:10:53.432
욕심을 버리고
다 내려놓을 수 있다.

00:10:53.532 --> 00:10:55.852
단순함의 미학, 내려놓음의 미학.

00:10:55.952 --> 00:10:59.729
그다음에 두 번째는
소박한 삶입니다.

00:10:59.894 --> 00:11:02.747
삶에 대한 소박한 마음을 가지면

00:11:02.847 --> 00:11:06.926
결국은 겸손한 자세를
취할 수 있다는 거죠.

00:11:07.026 --> 00:11:11.010
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
소박하고 단순하게

00:11:11.110 --> 00:11:15.089
우리 삶을 바라보면 굉장히
겸손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

00:11:15.189 --> 00:11:19.263
그다음에 훈데르트바서의
환경적인 차원에서 보면

00:11:19.363 --> 00:11:22.884
우리 인간은 자연에
초대된 손님이다.

00:11:22.984 --> 00:11:27.242
그래서 부수고 소유하고 꾸미고
이렇게 장식하려 하지 마라.

00:11:27.342 --> 00:11:29.991
그래서 무소유의 정신, 자연과 같은

00:11:30.132 --> 00:11:33.468
맑은 정신의 삶으로 살라는
그런 이야기입니다.

00:11:33.568 --> 00:11:37.669
그래서 이번 주제에서 이야기하는
단순함, 소박함, 무소유

00:11:37.769 --> 00:11:41.255
이런 거를 훈데르트바서의
자연주의 철학에서

00:11:41.355 --> 00:11:43.547
하나로 크게 아우를 수 있는데요.

00:11:43.647 --> 00:11:45.822
이런 말로 요약할 수 있죠.

00:11:45.922 --> 00:11:49.146
그런 단순함, 소박함,
무소유의 정신을

00:11:49.246 --> 00:11:52.304
나 혼자 꿈을 꾸면 그것은
한갓 꿈일 뿐이다.

00:11:52.404 --> 00:11:54.830
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꿈을 꾸면

00:11:54.930 --> 00:11:58.754
그것은 새로운 현실의 출발이
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11:58.865 --> 00:12:02.679
그래서 훈데르트바서의 이런
자연주의 철학과 함께

00:12:02.779 --> 00:12:07.866
우리 삶은 수직이고 죽음은
수평이라는 이야기입니다.

00:12:08.242 --> 00:12:09.131

감사합니다.